

1세대 미주 이민 작가 전낙청 연애론의 탈경제적 상상력과 아나크로니즘적 민중성*

김 지 영**

요약

이 연구는 최근에 자료가 발굴된 제 1세대 미주 이민 한인 작가 전낙청의 연애 담론을 식민지 시기 한국 연애 담론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그 의미를 진단하고자 했다. 전낙청에게 '연애'는 인간 삶의 근원을 조명함으로써 현실의 부당성을 극복하고 삶의 원형적 핵심에 닿고자 했던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연애 담론이 문명과 진보의 기획 위에 제도를 구축하는 다층적인 분할과 경계에 기반하여 전개된 것과 달리, 전낙청에게 '연애'는 근대 문명으로서의 진입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근대 문명을 비판하기 위해 선택된 소재였다. 그는 '연애'를 통해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보편의 진리를 찾으려 했고, 시공을 횡단하는 다채로운 일화들을 통해 분할과 우열의식에 기반한 근대 지(知)의 도그마를 탈구축하는 삶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했다. 인간성의 구조가 지닌 근본적 모순과 한계를 함축하는 그의 택미성(擇美性) 이론은 선형적인 계몽의 역학을 해체하고 관계의 일원성에 저항하며 문명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한말의 세속적인 민중의 삶 속에서 훈인제도의 제한을 뛰어넘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연애의 윤리를 발견하는 그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는 과거의 문화를 지속적인 운동과 성찰의 대상으로 재인식 시키며 현재에 접속하는 역동성을 개방했다. 구한말의 조선을 미완결의 시공으로 개방하는 그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는 다양한 사실과 맥락들을 선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근대의 지배적 사고에 맞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근대적 가치가 숨기고 있는 모순과 균열을 들추어냈다.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초연구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음 : 과제번호 2023S1A5A2A01075219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어: 전낙청, 자유연애, 이민, 미주, 디아스포라, 제 1세대 미국 이민, 구한말, 식민지, 에세이

목차

1. 들어가며
2. '연애', 차이를 횡단하는 보편적 진리의 출발점
3. '택미성(擇美性)', 문명의 모순을 함축하는 연애의 원리
4. 근대 지(知)의 분할과 경계에 대한 저항
5. 아나크로니즘과 민중성
6.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최근에 자료가 발굴된 제 1세대 미주 이민 한인 작가 전낙청의 연애 담론을 식민지 시기 한국 연애 담론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그 의미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낙청(1876~1953)은 한국 최초로 하와이로 이주했던 이주 노동자의 일원으로, 1904년 하와이를 거쳐 1907년 캘리포니아에 이주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오렌지 농장, 철도, 호텔 등에서 노동하며 미국에 정착했던 첫 이민 세대였던 전낙청은 3편의 장편소설과 5편의 중단편소설(개작은 작품 수에서 제외), 그리고 6편의 에세이를 남겼다. 그의 작품들은 필사본의 형태로 유족들에게 간직되어 있다가 2000년대 초반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서관에 기증되었고, 2010년대 말에 와서야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2020년 고전문학 연구자 황재문의 편역으로 선집이 출판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기까지, 전낙청의 작품들은 27행의 세로줄이 그어진 노트에 펜으로 기술된 필사본의 형식으로 도서관에 잠들어 있었다. 전낙청의 문학은 2019년까지 한 번도 공적인 매체에 실리지

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가문 보존의 필사본으로 존재하는 전례 없이 희귀한 유형의 근대 작품이다.¹⁾

전낙청의 문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학사에 ‘충격’적이다. 그의 원고들은 한자와 조선어, 한글로 독음을 표기한 영어를 세기말의 조선어 어법으로 조합한 보기 드문 혼종 문체로 구현된다. 또한 그는 고전소설에 가까운 작품과 근대소설에 가까운 작품들을 함께 남긴 한국문학사에 유례가 없는 작가이기도 했다. 19세기 조선을 무대로 한 3편의 장편과 20세기 초반을 무대로 한 5편의 중단편 사이에는 단순히 이야기 배경뿐만 아니라 문체와 서사 전개 방식에서 뚜렷이 변별적인 지점들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무대로 한 그의 소설들은 조선과 중국 고전, 그리고 서구 생활의 경험을 접속하여 미국, 프랑스, 중국의 당대사를 횡단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그는 근대적 사유와 경험을 압축한 작품에서도 전 근대적 문체를 버리지 않은 채 서술을 진행했고,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의 혼종적인 체제를 통해 타인종의 연애나 인종간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이처럼 미증유의 활동을 한 작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5년여에 지나지 않는다. 전낙청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지영, 황재문, 전우형 세 연구자에 의해 도합 10편 미만의 논문이 발표된 것이 전부이다. 연구는 주로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세기를 무대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2편, 부분적으로 에세이를 포함한 연구가 1편 개진되었다.²⁾ 공식 매체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으며 수정과 개

-
- 1) 황재문, 「옮긴이의 말」, 전낙청, 『구제적 강도(주석본)』, 소명, 2020. 6-19면 ;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 : 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집, 춘원연구학회, 2018, 345-384면 ;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26권 2호, 2020. 191-219면.
- 2) 전낙청의 에세이를 다룬 최초의 논문은 황재문의 「전낙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한국학논집』 82, 2021.3. 143-175면)이다. 이 연구에서 황재문은 전낙청의 고전 장편 3편에 나타나는 연애 관계의 특성을 짚으며, 이와 함께 수필 「연애와 열애」의 중심 내용을 소개하였다. 20

작을 반복하며 노트에 기록되었던 이 작가의 작품들을 발굴, 추적하여 정본화하고 작품 속의 역사적 사건이나 언급들을 통해 1917년경에서 1937년경 사이로 창작 시기를 추정·확인하는 어려운 작업이 이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작가의 작품을 한국문학사에 수용하여 위상짓고 의미화하는 작업은 향후 적극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전낙청의 수필 「경제적 열애(悅愛)」와 「연애와 열애(悅愛)」에서³⁾ 전개하는 연애 담론이 한국 연애 담론사에서 지니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그의 연애 담론을 관통하는 탈경계적 상상력의 문화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애론’을 중심으로 전낙청 에세이의 사(史)적 위상을 맥락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 전낙청의 문학을

세기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황재문의 앞의 논문(2018)과 전우형의 앞의 논문(2020)이 있으며, 고전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흥경래란에 대한 기억」, 『한국학』 41권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5-304면. ; 이지영,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학회, 2018, 163-197면;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303-337면.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8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11, 271-296면. ; 황재문,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전낙청의 〈흥경래전〉, 〈흥중래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43-79면.

- 3) 「경제적 연애」는 선집 『구체적 강도』에 수록되었으나, 「연애와 열애」는 작품이 아직 인쇄출판되지 않은 미출간본이다. 「연애와 열애」는 황재문의 앞의 논문(2021)을 통해 학계에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본고는 황재문 교수가 소장한 4종의 이본 중 가장 완성된 형태로 밝히고 정리한 수필 「연애와 열애」(원본은 USC 소장)를 저본으로 했다. 지면을 빌어, 자료를 공유해 주신 황재문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애와 열애」의 원문은 USC 도서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digitallibrary.usc.edu/asset-management/2A3BF1Q048484?FR_1&W=1865&H=956 이하 본고에서 「연애와 열애」를 인용할 때는 가독성을 위해 황재문 교수가 정리한 원고를 바탕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해 두기로 하며, 원문의 위치는 위 웹사이트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 밖에 자료는 2020년 출간된 『구체적 강도(현대이본)』을 저본으로 하되, 본문에 별도의 인용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성을 고려하여 2020년 출간된 『구체적 강도(주석본)』을 활용하고 각주에 주석본임을 따로 밝히기로 한다.

관통하는 핵심적인 논제가 ‘연애’였기 때문이다.⁴⁾ 전낙청은 「연애와 열애」, 「경제적 열애」 두 에세이를 통해 다른 어떤 연애론과도 차이나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연애 “학설”을 주창하였다. 그는 ‘택미성’이라는 자신만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류의 연애사를 설명하는 독자적 논리 구조를 창조해냈는데, 전낙청 연애론의 논리와 구조는 조선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어떤 연애 담론과도 구분되는 특이성을 지닌다. 일부일처제를 부정하는 연애론과 정조 관념에 대한 비판적 태도, 혼외 관계에 개방적인 태도 등 여타의 연애론과는 표나게 차이나는 개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그의 소설들에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영국인과 중국인의 사랑, 1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발생한 참전 미군과 프랑스 여성의 사랑, 미국인과 조선인 이민 2세대의 사랑 등 계급과 인종을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관계 양상들이 다루어진다.

작가 전낙청이 ‘연애’에 기울었던 이 같은 집중적 관심과 내용적 이질성, 혼종성을 고려할 때, ‘연애’라는 소재는 그의 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 문학사적으로 위상짓는 핵심적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사랑의 관계 속에 재조명하고 사랑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 했던 그의 논리가 식민지 조선의 연애 담론과 독특하게 관계 맺으며⁵⁾ 어느 누구의 그것과도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계를

4) 전낙청의 문학에 나타나는 연애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발표된 황재문의 앞의 연구에서 먼저 논구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황재문은 고소설 성격의 작품 『홍경래전』, 『홍중래전』, 『부도』에서 표현되는 독특한 ‘연애’ 관계와 함께, 수필 「연애와 열애」의 내용과 전낙청 고유의 택미성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전낙청의 고소설에서 연애관계가 평등한 남녀관계와 적극적인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특이성을 지님이 밝혀졌고, 전낙청이 기존 한국문학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연애 문학을 개진했다는 사실이 최초로 학계에 알려졌다. 선행 연구는 전낙청의 연애관이 지닌 새로움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것이 기존 연애 담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맺는지를 탐구하지는 않았는데, 식민지 근대 연애 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두 편의 에세이를 집중 조명하는 본고는 전낙청의 연애 담론의 구조와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최초의 본격적인 전낙청 에세이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뚜렷히 구분되는 변별성을 지닌다.

구축한다는 사실이다.

전낙청의 연애 담론은 이광수 세대의 혼인개혁론, 동인지 문학 세대의 자유연애담론, 사회주의자들의 연애 담론을 횡단하며, 이들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접촉과 단절, 비판과 전복의 양상을 드러낸다. 구한말 조선 민중의 세속적인 삶과 문화의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유이민의 삶을 살았던 그의 연애담론은 선형적인 근대화의 논리 위에서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연애 담론과 달리, 디아스포라 접경인의 탈경계적 상상력과 개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구조적 면모를 펼쳐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담론의 문제적 지점에 주목하면서, 전낙청의 연애에세이가 지니는 논의구조의 특성을 한국 연애 담론사의 지평 위에 자리 매김하고, 아울러 그의 담론이 지니는 독자성을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적 상상력의 민중성과 아나크로니즘⁶⁾ 속에서 고찰하

5) 미주 한인 사회의 풍경을 드러내주는 독보적인 매체였던 《신한민보》에서 ‘연애’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이후부터였다. 《신한민보》에서 연애가 제목에 기사화된 예는 4건으로, 스웨덴 왕손이나 중국 범정에서 일어난 연애 사건 보도, 미주 지역 조선인의 실종이나 자살 시도를 짧게 다룬 보도가 기사화된 바 있다. 소설의 경우에는 3.1운동 이후 항일 투쟁정신과 애정윤리를 결합시켜 본 사례가 등장하고 이후 애정모털을 인간의 본질이나 기독교와 연관 시켜 탐구한 사례들도 나타난다. 특히 1926년에 발표된 소설 「자유혼인」에서는 “이상적 혼인 “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낙청이 「연애와 열애」에서 다루는 신진 인물들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초창기 미주 한인 사회에서 ‘연애’는 조선과 같이 대대적인 정도는 아니었으나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맞물려 사고되고 언급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전낙청이 논하는 ‘연애’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낙청은 「미주 동포에게 주는 글」, 「인생관」 등에서 《동아일보》를 읽고 있음을 자주 밝히는데, 그가 연애에 대한 논의를 접했던 것은 이 같은 당대 매체와 미주 한인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기성의 연애론을 접했는지는 향후 더 밝혀져야 할 문제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의 비교는 가능한데, 이 글에서는 물리적인 영향 관계를 떠나 내용적 차원에서 전낙청 연애론의 의의와 위상을 본국의 그것을 비교하여 밝히는 데 목적을 두기로 한다. 초창기 미주 한인 소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했다. 조규익, 「제 1세대 재미 한인작가의 소설 (I) : 삼일운동 이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11집, 1998, 297-322면. ; 「조규익, 「제 1세대 재미 한인작가의 소설(II): 삼일운동-해방직전」, 『숭실어문』 15, 1999, 131-183면.

6) 흔히 시대착오로 번역되는 ‘아나크로니즘’은 시간 혹은 시대와 맞지 않은 일을 가리키는 용어

고자 한다.

2. '연애', 차이를 횡단하는 보편적 진리의 출발점

작가 전낙청의 문학을 최초로 인쇄·출판한 황재문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전낙청의 원고는 모두 세로줄이 그어진 낱장 노트에 구멍을 뚫어 금속 링으로 고정시킨 바인더 모양으로 남겨져 있다.⁷⁾ 바인더 형식의 낱장 묶음이기 때문에 노트 사이의 분산과 정리 상의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총 6편이 남겨진 에세이는 대체로 한 권의 노트에 따로 묶여 있다. 이 중 각각 1면과 4면만 남아 있는 「약육강식」과 「생사관」을 제외한, 「경제적 열애」, 「미주 동포들에게 올리는 글」⁸⁾, 「인생관」 세 편이 작품집 『구제적 강도』에 묶여 발표되었고, 「연애와 열애」는 미인쇄 원고로 2024년 현재 USC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사진으로 원문이 공개되고 있다. 「연애와 열애」는 전낙청의 에세이 중 분량상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고로, 4편의 이본이 있을 정도로 전낙청 에세이 전체에서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으로 보인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전낙청의 에세이에서도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소재는 '연애'였다. 「연애와 열애」의 원고량이나 이본의 존재, 「경제적 열애」, 「인생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혼인관은 작가의 일관된 관심과 사고의 연속성을 엿보게 한다. 「경제적 열애」와 「연애와 열애」는 작가의 연애관이 직접적인 언술로 압축되어 있는 저작들인데, 전자의 창작 시기는

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대성/시간성에서 벗어난 사고와 상상력을 개념화하기에 적절한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착오'라는 표현이 지니는 오류의 의미보다는 보편성을 벗어난 사유 속에서 발생하는 생성적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외래어 표기(아나크로니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7) 황재문(2020), 9면.

8) 이 글은 서두가 없어서 제목을 역자 황재문이 붙였다.

1930년대 초중반,⁹⁾ 후자의 집필 시기는 그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두 에세이는 전개상에서 유사한 담론 구조를 띤다. 『구체적 강도』에 수록·공개된 「경제적 열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1) 연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 (2) 탁미성으로 인한 원시 인간의 연애 갈등과 투쟁의 기원 조명
- (3) 혼인제도의 형성과 그 부작용의 세대 강변
- (4) 부락, 추장, 군주 시대의 역사 전개와 동반된 연애 관계 설명
- (5) 경제적 이해로 혼탁해진 현대 연애의 타락상 비판
- (6) 타락한 현대 연애의 일화 제시
- (7) 현대 연애의 타락상에 대한 개탄과 정리

「연애와 열애」에서는 (1)과 (2) 사이에 ‘집필 의도’와 ‘아담/이브의 일화’가 추가되어 있고, (4)가 등장하지 않으며, (5)의 자리에서 연애지상설에 대한 비판이 짧게 전개된다. 이어서 (6)의 위치에서는 사랑의 상대를 배신한 동서양 고금의 연애 일화가 여섯 가지로 길게 전개되며, (7)의 자리에서는 연애지상설에 대한 비판이 강명화·장병천의 사례 및 서양 학자의 주장을 소재로 덧붙여진다. 종합하면, 두 에세이는 (1), (2), (3), (6), (7)의 비슷한 구조로 진행되면서 (4)와 (5), 그리고 마무리에서 변주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로 다른 제목의 글로 발표된 만큼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두 편의 연

9) 『구체적 강도』에서 황재문 교수는 작품과 논설에서 언급되는 사건과 소재들을 근거로 하여 수록 작품의 창작 시점을 193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했다. 황재문(2020), 13면.

10)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경제적 열애」가 1930년대 정점을 찍었던 사회주의 연애 담론의 논의방식을 일정하게 차용하고 있다면, 「연애와 열애」는 1920년대 전반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조선의 자유연애 담론을 겨냥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시사회부터 인류의 발생 과정을 정리한 논리 구조의 완성도에서 볼 때 에세이의 집필 순서는 「연애와 열애」, 「경제적 열애」, 「인생관」의 순으로 추측된다.

애론에서 동질성을 띠며 전개되는 주지는 혼인제도에 대한 부정의식과 타락한 연애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다만 「경제적 열애」에서는 물질에 좌우되는 현대 연애의 타락상에, 「연애와 열애」에서는 “전대”(과거)의 연애를 폄하하는 신진 인물들에 대한 비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편의 에세이는 모두 시작 부분에서 ‘연애’가 왜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는지를 강조했다. 「연애와 열애」에서는 인간이 성질과 체질로 구성되며, 전자를 연애가, 후자를 음식이 보양한다고 보았고, 「경제적 열애」에서는 인류의 삶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의식주의 물질적 필요와 ‘열애’라는 사랑의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다.¹¹⁾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오늘날의 ‘성애’에 해당하는 전낙청만의 독창적 어휘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연애’에 두었는데, “동물들은 암컷이 임신 가능한 기간에만 열애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인류는 “열애가 싹트는 시기로부터 쇠퇴할 때까지 열애를 요구”¹²⁾한다고 보았다. 또 “열이의 결과로 인류가 번식”되나 “마음대로 열이할 수 업”어서 “자연 련련(戀戀)한 싱각이 면면(綿綿)하게 될지니, 이것이 련이”¹³⁾라고 설명했다. ‘열애’가 동물적 사랑이라면 ‘연애’는 육체적 접촉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이다.¹⁴⁾ “음식과 련열은 싱의 진리”(「연애와 열애」)라고 못박을 만큼, 그는 인간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연애와 열애에 진중한 가치를 부여했다.

연애와 열애에 삶의 본원적 가치를 부여한 후 이어지는 논의(〈2〉)는 원시 인류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진행된다. 인간의 짝짓기는 번식만을 목적

11) 전낙청, 「경제적 열애」, 황재문 역, 『구제적 강도(현대어본)』, 소명, 2020, 437-438면.

12) 전낙청, 「경제적 열애」, 437면.

13) 전낙청, 「연애와 열애」, USC 도서관 소장본

(https://digitallibrary.usc.edu/asset-management/2A3BF1Q0484847FR_=1&W=1865&H=95653)

14) 전낙청이 ‘연애’와 ‘열애’를 구분해서 쓴다는 점은 황재문의 앞의 논문(2018)에서 먼저 밝혀졌다.

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에 대한 호오(好惡)가 존재하고 이 호오(好惡)의 선택으로 인한 갈등과 불균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며, 개체가 늘어 균 집이 될수록 극심해지는 이 분쟁의 폐단을 조정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 혼 인제도라는 것이 이어지는 <2>의 주지를 이룬다. 동물적 상태에서 점차 진화하는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사랑의 관계를 고찰하는 논의구조는 식민 지 조선 연애론의 출발에 영향을 끼친 엘렌 케이나 구리야기와 하쿠손의 논의에서도 나타나는 연애학 논자들의 일반적인 논의방식이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낙청의 논의구조는 엘렌 케이,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그것과 차이나는 지점을 드러내는데, 이는 특히 「경제적 열애」에서 또렷이 부각된다. 「경제적 열애」에서 전낙청은 단순히 원 시적 인간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상정하는 데서 나아가,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 대한 해석을 그의 연애론에 포함했다. 농경사회의 시작과 남녀의 상호 이익에 따른 교환관계의 관습화로 혼인제도를 설명하고, 이후 인류의 역사를 부락 시대, 군주 시대 등의 전개 과정으로 살폈다. 또, 연애의 대상 선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제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던 「연애와 열애」의 논의에서 나아가, 「경제적 열애」는 여성의 임신과 남성이 제공하는 의식(衣食)의 교환관계를 경제적 열애의 기초로 설명했다. 사랑의 문제를 단순히 개체적 감정 관계로 보지 않고 물질생활에 기초한 교환관계에 연관짓는 논의방식은 사회주의자들의 유물론적 사고와 접점을 이룬다.¹⁵⁾

기실 이광수가 주창한 자유혼인론의 근간이 되었던 엘렌 케이, 그리고 동인지 문인들의 연애지상주의의 토대를 이룬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논의는 원시 인간과 문명사회의 사랑을 대립시키고, 후자에 정신적 가치와 숭

15) 인류의 발생과 역사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전낙청의 사회주의적 관점은 「인생관」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인생관」은 「연애와 열애」, 「경제적 열애」보다 역사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유재산과 조세 제도 등을 포함하여 유물론적 관점과 논리가 일층 강화되어 있다.

고성을 부여하는 이분법적 진화론의 구도를 취했다. 이와 달리,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1930년대 전반 팽배했던 사회주의계의 연애론¹⁶⁾은 사적 소유의 성립과 그에 얽힌 역사발전의 단계를 사랑의 역사와 엮어냈다. 주지하다시피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에서 엥겔스는 사유재산의 발생이 원시 공동체나 모계 혈통 사회에서 일부일처제로 사회 체제가 이동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¹⁷⁾ 고대의 혈족혼, 대우혼 등으로부터 가부장제로의 이동, 그리고 이어지는 부족, 국가의 형성과정은 사적 소유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설명한 엥겔스의 논지는 엘렌 케이, 구리아가와와의 ‘원시/문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달리, 사적 소유와 사회관계의 조직을 연동시키고 이를 토대로 역사 발전의 논리적 역학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이룬다.

엥겔스의 논의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930년대 사회주의계의 연애 담론 속에는 인류의 가족구조 변화와 역사발전의 과정을 연관시켜 개괄하는 서술이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¹⁸⁾ 전낙청이 미국에서도 조선에서 오는 잡지와 신문, 서적을 구해 읽은 것으로 밝힌 여러 기록들을 볼 때,¹⁹⁾ 전낙청의 유물론적 논의구조는 사회주의적 연애 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은 그의 가치관을 직접 피력하고 있는 에세이 「인생관」에서는 더욱 또렷이 나

16) 연애, 결혼, 가족은 서로 긴밀하게 얽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논의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사랑, 결혼, 가족과 관련된 담론 전체를 ‘연애론’으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17)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 이현지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18) 다음과 같은 칼럼들이 그 예에 해당한다. 우해천, 「연애의 계급성」, 『신여성』 제5권 9호, 1931.10, 26-29면. ; 안화산, 「계급적 성도덕 수립론」, 『삼천리』 제 5권 1호, 1933.1, 98-99면.

19) 전낙청은 그가 남긴 글의 여러 군데에서 조선에서 유입되는 신문, 잡지와 서적들을 접해 왔던 흔적들을 드러낸다. 「미주 동포들에게 올리는 글」에서는 『동아일보』를 보았던 기록을(현대어역본, 455면), 「인생론」에서는 조선에서 오는 잡지를 보았던 기록이(현대어역본, 482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황재문의 앞의 논문(2018)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타난다. 이 글에서 전낙청은 “사회주의는 인류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나는 근본적으로 집산주의를 찬성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찬성한다”²⁰⁾고 명시한 바 있다. 혼인제도의 형성과정과 이후 부락, 군주 시대의 전이과정을 물질 생산관계와 밀접하게 엮어 더욱 정교해지는 논리 전개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사유를 출발하는 전낙청의 발생론적 논의구조는 엘렌 케이나 구리아가와와 같이 문명과 야만을 대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명 발전의 원리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발생론적 논의구조를 취하는 또 한 편의 에세이 「인생론」에서 작가는 “오늘날의 나쁜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을 알려면, 인류의 시조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²¹⁾는 말로 원시적 기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를 밝힌다. 그가 본 인류의 현실은 “도덕이 거의 사라지고 양심이 매우 부족”²²⁾한 문체적 상태이자 “나쁜 결과”였다. 현실에 대한 이 같은 진단은 그가 사회주의계의 논의 방식을 차용하고 인류와 역사의 기원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논의구조를 반복했던 이유를 확인해 준다. 그에게 문명의 전개는 당위가 아니라 의문의 대상이었으며, 그의 에세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발생론적 논의구조는 그런 의문에 답하며

20) 전낙청, 「인생관」, 『구제적 강도(현대어역본)』, 황재문 역, 소명, 2020, 481면. 「인생관」은 또한 원시 사회로부터 추장시대, 군주시대를 거쳐 국가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유재산의 형성과 명확히 연관시키고 있어 전낙청 에세이에서 반복되는 발생론적 서술의 가장 진보된 형태를 보여준다. (같은 책, 458-463면 참조) 다만 전낙청은 마르크스를 “집산주의자”로 크로포트킨을 “공산주의자”로 명명하고 있으며 레닌이 크로포트킨을 총살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급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면은 그가 이해한 사회주의 사상이 풍문에 근거한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는 마르크스가 공동으로 생산하되 일한 만큼 가져가는 “집산주의”를 주장했으며, 크로포트킨은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공산주의”를 지향했다고 이해했으며,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집산주의”보다 더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체제라고 보았다.

21) 전낙청, 「인생관」, 457면.

22) 전낙청, 「인생관」, 471면.

능동적으로 세계의 구조를 이해해 보려는 의도의 산물인 것이다.

당대 현실을 “도덕이 거의 사라진” 세계로 일컫는 비판적 진단은 작가가 걸어야 했던 신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낙청은 1904년 조선을 떠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극빈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1876년 정주에서 태어나 1904년 20대 후반에 하와이 노동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전낙청은 상업에 종사하며 전국을 유랑한 바 있고, 하와이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이후에는 오렌지 농장 등의 노동자로 일했다. 그는 조선에서도 정주인의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고,²⁴⁾ 미국에서는 극빈층 황인이자, 나라 잃은 이주민으로 뿌리 없이 떠돌아야 했던 제 1세대 조선인 이민자였다. 20세기 초 백인사회를 살아가는 유색인 노동자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신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어느 사회에서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방외인적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공적인 발표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에 쓴 줄글의 형식으로 다량의 창작을 남겼다는 사실은 그가 세계에 대해 쌓아둔 향연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가 하필이면 ‘연애’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사고하는 인류의 발생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발생론적 사고를 전개한 것은 이 같은 향겨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는 먹을 것과 열애가 인간 삶의 가장 근본이며, “싱의 진리”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열애를 선택하여 인간 기원의 차원에서부터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며, 자신의 논리를 정돈하기 위해 글을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정성을 기울였다. 이처럼 글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그는 고급과 동

23) 황재문(2018) 참조.

24) 「연애와 열애」에서 그는 “너가 갓잡은 전에 상업 명식으로 타도타관에 가서 몇 첩 지니었다”고 쓰고 있으며, 작가와 여러 가지 부면에서 유사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작품 『부도』의 주인공의 삶에 미루어 볼 때도 주로 상업에 종사하며 조선의 시정 문화에 매우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연애의 일화들을 글에 포함하고 정선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시공을 횡단하는 다채로운 일화들을 통해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문제화하고 이를 기원과 발생의 차원에서부터 따져 보고자 한 논의구조는 시간과 공간, 인종과 젠더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보편의 진리를 확인함으로써 그가 겪어야 했던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증언하고자 했던 의도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그에게 ‘연애’는 인간 삶의 근원을 조명함으로써 현실의 부당성을 극복하고 삶의 핵심에 닿고자 했던 원대한 기획과 포부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애와 열애」에서 그가 자신의 글을 서양 사회에 충격을 줄 만한 대단한 기획으로 시사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련익은 과거 인루가 必由한 덕경이요, 현직 인루도 필수하는 大經이요, 미리 인루도 필수할 덕경이다. 누구나을 물론하고 인루된 사람은 다가치 한 번 만보을 련익이다. 다가치 만을 보지만 그 만을 깊히 아는 사람은 업슬 듯하다. 음식 안이 먹는 사람이 업지만 그 만 아는 사람 업슴 갖다. 이 련익의 미(味)을 솔노몬의 디헤로도 히석 못한 련익의 秘志을 어리석은 우리가 히석코져 함은 실노 어리석음을 자랑함이다. 그러나 련익은 인싱관에 덕문테이니, 어리석으나 디헤스러우나 싱각 가는티로 쓰고저 한다. 만일 너가 영문 작문이 룡(能)하여 영문으로 기술하연드면 빅인사회에서 덕환영할 줄노 취상(就想)한다만, 영문 작문을 몰으니 할 수 업시아는 우리 본문으로 기술한다. 러모(禮貌)을 주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학설을 환영할는지 비척할는지 의문이 된다. 만일 환영하면 먼루관을 밧지만 비척하면 가식관을 밧을 터이다. 독자 제군. 가식관과 먼루관을 준비하라.²⁵⁾

25) 전낙칭, 「연애와 열애」, op. cit.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인류 누구나에게 공통되며, 어떤 인간이든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이 연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 연애라는 설명은 그가 연애론에 전념하게 된 이유를 확인해 준다. 게다가 저자는 이 글을 영문으로 작성했다면 백인사회에서 대환영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같은 기대는 자신의 이해에 대한 저자의 만만치 않은 자신감을 명시하고 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고통과 천대, 소수자의 고립감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전복의 기제로서 저자는 자신의 글쓰기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의 출발점은 식민지 조선 제도권에서 진행된 연애 논의와 전낙청의 연애담론이 그 근간에서부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준다.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연애론은 부모 주도의 전통적 혼인방식을 개혁하고 혼인 당자가 자발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족 구성을 통해 신문명적 삶으로 이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역설되었다. 연애는 청년들이 근대적 주체로서 자아의 자율성을 선언하는 촉매였고, 부자 중심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구조로 개편하는 사회 개혁의 단서였다.²⁶⁾ 이들에게 연애는 자신들과 재래의 전통을 구별하는 경계와 분할의 지표였으며, 부모세대와 맞서 지켜야 할 연대의 전선이었다.

이와 반대로 전낙청에게 ‘연애’는 근대 문명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매개로 선택된 소재였다. 그는 ‘연애’를 통해 서양과 동양,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보편의 진리를 찾으려 했고, 그가 살았던 서양 근대의 현실 그 자체보다는 원시 사회로부터 인류의 가족 구성을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에 천착했다. 후에 보겠지만, 식민지 조선 제도권에서 공적 사회를 뒷받침할 바람직한 혼인의 방법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던 연애가 전낙청의 논의에서는 오히려 혼인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 같은 의도와 방법의 차

26) 식민지 조선의 ‘연애’ 담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1. ;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 2007.

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낙청의 논의에서 연애는 관습화된 감각이나 양식화된 사유가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비(非)사유를 사유의 지평에 떠올리며, 제도가 사유하지 않았던 것을 사유케 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역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3. '택미성(擇美性)', 문명의 모순을 함축하는 연애의 원리

전낙청 연애론의 핵심은 택미성이라는 고유의 개념과 혼인제도에 저항하는 사고로 구성된다. 「연애와 열애」, 「경제적 열애」는 작가의 독창적 개념인 '택미성'을 기반으로 하여, 혼인제도를 부정하고 타락한 연애 현실을 개탄하는 동질적인 주지 속에 전개된다. '택미성' 논리와 혼인제도에 대한 부정의식은 전낙청 연애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다. '택미성(擇美性)'이란 보다 나은 것(美)을 선택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전낙청 고유의 용어였다.

모든 동물이 사람과 가치 열의성은 이스되 련의성은 업다. 다른 동물이 업는 련의성을 엇지하여 사람만 잇나냐? 다른 동물 추(醜)와 미(美)을 몰은다. 사람만 추미(醜美)을 알고, 택미(擇美)한다.²⁷⁾

인민의 생계(生計)가 더할 수 업시 곤고(困苦)하니, 그 곤고로 인하여 인디(人智)가 연진(演進)된다. (중략) 사람은 택미성(擇美性)이 있다. 인디(人智)가 일부일(日復日) 연진하여 단수(單純)하든 싱환이 복잡하기가 형언(形言)할 수 업다.²⁸⁾

27)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28) 전낙청, 「인생관」, 황재문 편, 『구제적강도(주석본)』, 소명, 2020, 504면.

그에 따르면 동물의 열애(성애)가 번식에 귀속된 것과 달리, 인간의 열애는 성애가 가능한 전 생애를 관통한다. 다만 열애는 남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이 합의는 주로 까다로운 성향을 지닌 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는 보았다. 열애 대상을 선택하는 여성의 까다로운 기준을 표현하는 용어가 택미성이다. 그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본성인 “택미성”은 여성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질이 여성에게 특히 강하며, 그런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이 문명을 발달시켰다. 전낙청이 말하는 택미성의 미(아름다움)에는 시각적인 미추의 선택만이 아니라 이로움과 해로움, 선함과 악함 등 개인이 감정적인 호오(好惡)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들이 택미성을 지닌 여성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지으며, 더 나은 선물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택미성에 의한 갈등과 쟁투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혼인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남녀의 사랑과 가족제도의 형성을 유물론적 교환관계를 토대로 구상하는 상상력은 예의 사회주의적 경향성의 산물이다.²⁹⁾ 그러나 전낙청의 사고는 혼인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앵겔스나 그를 계승한 조선 사회주의 연애담론의 주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다.

식민지 조선의 연애담론은 자유결혼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유연애론,

29) 그가 말하는 물질적 안락과 여성 성의 교환관계는 사유재산의 축적과 상속이 모계 사회를 부계 사회로 바꾸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형성했다고 보는 앵겔스의 연구와 같은 방식의 유물론적 사고에 의해 기초한다. 기실 전낙청의 연애론은 사회주의 담론과 여러 부분에서 닮은 점을 드러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공산주의를 가장 타당한 사회 이론이라고 단언한 것은 물론, 1) 물질과 여성 성의 교환관계라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진단한다는 점, 2) 성을 연애의 기초로 보고 열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신주의보다는 본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 3) 연애지상주의를 비현실적 관념으로 공격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연애 비판론의 순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지만, 근본적으로 혼인 그 자체가 전면 부정되는 경우는 희박했다. 흔히 ‘자유연애론으로 일컬어졌던 이광수의 지론은 자발적 사랑에 의거하지 않은 혼인(부모가 주체가 되는 혼인)에 대한 거부권리와 감정의 자유를 선언하는 데 있었고, 이를 계승한 조선 청년들의 자유연애론 역시 강제 결혼을 거부하는 연애의 자유를 주창하는 것이었지, 결코 마음대로 파트너를 바꾸는 분방한 연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구리아가와 하쿠손의 논의를 계승한 조선 문사들의 연애지상주의 역시 혼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당자의 개성과 정신적 교감에 의거한 사랑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발적 감정에 의해 만난 이성과의 결혼을 이상화했다. 구리아가와와의 연애지상주의는 이상적 결속으로서 혼인의 의미를 더 없이 신성화했고, 분방한 연애와는 반대로 사랑하는 이를 위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구리아가와와의 논의는 식민지 조선 청년들에게 이혼의 자유를 요구하고 연애의 신성을 주창하는 방식으로 굴절되어 전유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부당한 혼인(강제 혼인)이 거부되었을 뿐, 혼인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혼인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주의 연애 담론에서도 주류적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았다.³⁰⁾ 가장 급진적인 연애론으로 일컬어지는 콜론타이의 이론조차도 “연애 같은 사적인 일보다 혁명과 같은 대의에 여성들을 복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대부분”³¹⁾을 차지할 만큼 남성중심

30) 사회주의자들은 정신성을 강조했던 선행 지식인 논자들과는 달리, 성을 연애의 토대로 명확히 했고, 경제생활이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연애보다 경제문제 해결을 우선시했다. 때문에 사회주의 연애론은 부르주아 연애론을 낭만적 허상으로 비판하고 연애를 계급적 규율 아래 종속시켜야 한다는 논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또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부르주아의 그것보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연애가 진짜 연애라는 식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연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Chiyoung Kim, “The Conceptual History of ‘Yonae’(love) in the Korean Colonial Period,” *ACTA KOREANA*, Vol.16, No.1, Academia Koreana, Keimyung University, 2013, pp.113-140 참조.

31)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2014,

적 시각과 보수적인 관점은 사회주의 담론 안에서도 유효했다.

물론 사회적 노동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이 극복되어야 하며, 여성의 생산력을 가족 안에 구속했던 제도가 개선되고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콜론타이의 급진적 사상은 일부 여성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예외적인 실천의 흔적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허정숙, 주세죽과 같은 인물들은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 남성과의 혼인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들을 보여주었고, 정철성의 경우는 콜론타이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 성욕과 연애는 구분해야 한다는 과감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³²⁾ 그러나 이처럼 급진적인 여성들의 사고는 실제 삶과 행적의 차원에서 실천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 논리를 통해 명확히 언표되는 경우가 희박했다. 소비에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담론의 주도권은 남성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을 가장 긴급한 역사적 과제로 삼는 사회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젠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급 문제 아래에 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³³⁾

혼인제도를 반박하는 전낙청의 논지는 소수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급진적 사상과 결과론적 차원에서 일정한 접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낙청이 콜론타이나 한국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혼인제도에 대한 그의 부정의식은 젠더 평등이나 제도 개선의 차원과 무관하며 원론적인 측면에서 인간 본성과 인간이 만든 제도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낙청의 연애론은 논의구

301면.

32) 1929년 『삼천리』에 실린 한 대담에서 정철성은 콜론타이의 성도덕을 논하는 가운데 「삼대의 사랑」의 인물 게니아의 성관념을 모방하여 “성욕과 연애는 갈려야 하겠지요”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철성 대담, 「赤戀 비판: 콜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 『삼천리』 2호, 1929. 48면.

33) Chiyoung Kim(2013) 참조. 한편, 노지승은 다음 연구에서 이러한 이유로 자유분방한 연애론으로서의 콜론타이즘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들에게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보았다. 노지승, 「사랑, 돌봄, 사적 영역의 변혁 가능성과 한계」, 『한국근대문학연구』 23권 1호, 2022, 157면.

조에서는 사회주의 담론의 역사발전 단계론을 부분적으로 차용했지만, 근본적으로 문명과 진보의 관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포했다.

혼인제도 이전 열익은 나의 마음이 허락하면 열익하되 허락지 않으면 죽기가 쉬우니 허락지 않는 신성(神成)이다만, 혼인제도 이후 열익은 마음이 허락지 않는 것을 명의상으로 허락하는 인조(人造)이다. (중략) 혼인제도 이전 련열은 질(質, 물질)의 충동이 적고 령(靈, 정신)의 구사(驅使)뿐이다. 제도 이후 련열은 령(靈)의 충동이 적고 질(質)에 구사뿐이다.³⁴⁾

결혼, 열익이 하나이 안이고 판이한 두 가지이다. 결혼으로 그 열익을 보존할 것 같으면 판이한 두 가지라 할 수 업스나, 열익은 혼인 받게 있다. 이기(二個)가 계약한 가옥 혹 토디(土地)는 계약 업는 타기(他個)가 침범 못하지만, 열익은 타기(他個)가 오락(娛樂)할 수 있다. 순실한 열익은 인격 고하나 표정 다소로 표준(標準)하고, 경제 우렬(優劣)은 못지 안 았다. 오늘날 열익은 인격 고하나 표정 다소을 보지 안고 경제 우렬을 살핀다. (중략) 순미한 열익은 참말 런화보좌(蓮花寶座)에 안근 것이나, 경제 열익은 디옥(地獄)에 누은 것 갓다. 남자는 경제력으로 원치 았는 여자의게 비정적(非情的) 미(美)을 특탈(勒奪)하여스며, 여자는 비정적 미로 남자의 경제력을 강탈한다. 남의게 특탈을 당하거나 강탈을 맞음은 인격 과상이다.³⁵⁾

인용문에서 혼인제도는 인간의 본성을 제약하지 못하는 험거운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결혼과 열애(성애)는 “판이한” 별개의 것이며, 혼인은 순수한 열애를 경제적 측면에 몰아매는 왜곡을 촉발한다. 혼인의 계약적 성격은 사랑을 물질과 연동시키며, 감정과 인격을 훼손하는

34) 전낙칭, 「연애와 열애」, op. cit.

35) 전낙칭, 「경제적 열애」, 황재문 편, 『구제적 강도(주석본), 소명, 2020, 482면.

인위적 조작을 야기한다. 이처럼 제도가 구축하는 관계가 순수한 감정을 훼손하는 인위성을 지닌다고 보고, 참된 애정을 제도와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며, 제도 외적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고는 전낙청 연애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의 연애론은 식민지 조선의 연애열이나 자유연애론의 기원지인 서구의 문화 풍속 어느 쪽과도 거리를 둔 전복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부정과 비판은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시각과 연계되어 있었다. 「연애와 열애」의 말미에서 작가는 “택미성은 마귀”이며 “하나님이 아직 인간 탄당을 허락하지 안았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동물은 자성(雌性)에게 웅성(雄性), 웅성의게 자성이면 화히하는 덕, 사람은 잊지하여 하오하호(何惡何好)가 이슬가? 하오(何惡)하는 것은 택미성(擇美性)의 식임이다. 택미성은 즉 마귀이다. (중략) 리상적 남녀를 극도로 구하는 남녀는 마귀에게 건진한 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의게도 다른 동물과 가치 열이를 주었지 리상적 부부나 리상적 가정을 주지 안았다. 마귀의 종 된 사람이 자칭 리상적 부부라 하고 리상적 가정을 건설하려 한다. 하나님이 아직 인간 탄당을 허락하지 안았다. 설사 너의 힘으로 건설한다 하자. 그 뒤에 조차오는 것이 행복이나? 멸망이나? 두 말 업는 멸망이다.³⁶⁾

인용문에 따르면 택미성은 악마의 속삭임이며, 택미성의 부름에 따라 “이상”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 즉, 택미성은 인간 고유의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문명이 구축되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문명에 내재한 모순과 과열의 잠재성을 함축하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택미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36)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본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계의 유동성과 혼인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한 것은 인간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모순적이며 그와 같은 모순 위에 구축된 문명의 현실이 근본적 결함을 지닌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전낙청의 에세이에서 ‘연애’의 담론적 기능이 사회문화를 옹호하고 진보를 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 구축한 문화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이 같은 사고는 문명과 진보라는 근대 지(知)의 당위에 균열을 일으키며 선형적인 계몽의 역학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연애라는 보편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발생론적 차원에서부터 인간 삶의 역학을 다시 따져 보려 했던 논리는 결국 서구 근대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구축된 문명 발전과 진보의 역학에 저항하는 태도로 귀결되는 것이다.

문명의 실패를 암시하는 이 같은 논리 속에는 나라 없는 이주민으로서 제도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주변인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작가가 회구했던 다른 관계와 가능성의 열망이 숨어 있다. 「연애와 열애」에서 ‘마귀’로 일컬어졌던 택미성은 「경제적 열애」에서는 “한편으로는 창조하는 신이지만 한편으로는 훼손하고 파멸시키는 신”³⁷⁾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는 모순과 한계를 내정한 인간 보편의 본성으로서 택미성을 앞세운 그의 논의가 단순히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하기 위해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 택미성은 어느 사회에서든 그 주변부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맴돌며 폭력과 배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경험했을 부당한 관계를 탈피하고, 보다 나은 관계의 가능성을 촉구하기 위한 이민자의 열

37)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 진화가 남자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상은 여자의 택미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여자에게 택미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문화 발달’이라는 말이 없을 것이며, 그저 아담과 이브의 시대와 한가지일 것이다. // 여자의 택미성은 한편으로는 창조하는 신이지만 한편으로는 훼손하고 파멸시키는 신이다.” 전낙청, 「경제적 열애」, 황재문 역, 『구제적 강도(현대어본)』, 소명, 2020, 441면.

망이 구성해낸 새로운 세계 해석의 기반이었다.³⁸⁾

4. 근대 지(知)의 분할과 경계에 대한 저항

전낙청의 연애 에세이는 두 편 모두 전반부에서 입론을 진행하다가 후반에 길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짧게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경제적 열애」에서 후반을 채우고 있는 사례는 미국의 한 미성년 갑부 소년이 돈을 노린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으로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일화이다. 이 일화는 연애와 열애가 “경제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언술로 마무리된다. 저자는 돈을 위해 애정을 가장하는 배금주의적 사랑을 “진리를 인조물로 바꾸니 천하다 지목”⁴⁰⁾하는데, 여기서 “인조물”이 ‘가장된 사랑’을 지칭한다면, “진리”는 순수한 인간의 열애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작가는 인간의 순수한 열애를 “진리”로 상정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사랑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천하다”고 비판하는 것인데, 이 같은 비판은 기실 인류의 성장 과정을 탐미성에 근거해 설명하면서 여성의 성과 남성 보호의 교환관계를 “경제적 열애의 시초”라고 일컬으며 이를 자

38) 전낙청이 상상했던 바람직한 관계의 구조는 「인생론」에서 그 개괄적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인생론」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의 의견을 명확히 했는데, 그가 생각한 공산주의는 “개인이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꾸짖고 모두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자 함”(「인생관」, 앞의 책, 482면)을 꾀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가는 윤리적인 사회를 가리켰다. “누구든지 생산에서는 자기 능력껏 힘을 다하고, 소비에서는 뺄 한 덩이가 필요하면 한 덩이를 가지고 두 덩이가 필요하면 두 덩이를” 가지는 사회가 전낙청이 상상했던 가장 “도덕적이며 합리적”(473면)인 사회였다.

39) 황재문은 「연애와 열애」의 이본들이 이 실제 사례들을 길고 자세하게 쓰면서 길이가 길어 지거나 후반이 유실되거나 한다고 전한다. 황재문(2021), 165면 참조.

40) 전낙청, 「경제적 열애」, 446면.

연의 일부와 같이 기술했던 서두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쾌미성에 의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는 습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임신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남성이 제공하는 의복과 음식의 보호를 자연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열애”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교환관계는 전낙칭이 비판하는 혼인제도 형성 이전의 과정으로, 작가는 이를 쾌미성에 의거한 자연적 섭리와 같이 기술했다. 이후 진술되는 혼인제도의 성립은 쾌미성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되지만, 역사를 횡단하는 그의 발생론적 논리는 ‘쾌미성-경제적 열애의 태동-혼인제도 형성-경제적 열애의 심화라는 고리를 형성하면서 세계의 타락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예의 문명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논리를 형성하게 된다.

문명 비판적인 관점은 「연애와 열애」에서 특히 강력했다. 「연애와 열애」에서도 글의 2/3 이상이 구체적인 연애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이 글에서 제시되는 여섯 가지 사례는 미국, 중국, 조선 등 여러 지역과 시대를 가로지른다. 장자 처의 일화, 남편을 청부살해한 조선 아낙의 일화, 바람난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미국 부동산업자의 일화, 문군을 버린 사마상여의 일화, 아버지의 친구였던 정기순의 일화, 샌디에고 해군을 대상으로 매매춘을 일삼았던 당대 미국인 할머니 매리의 일화가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앞의 세 일화가 남편을 배신한 아내를 다룬다면, 사마상여의 예는 여인을 유혹하고 버리는 남성의 매정함을 다룬 일화이고, 정기순과 할머니 매리의 일화는 역경을 딛고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후에 매매춘 시장에 내보냈던 남자들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을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사례 속에서 작자가 확인하는 것은 사랑을 배신하는 다양한 인간 현실에 대한 증언이다.⁴¹⁾ 열애하고 연애하는 마음은 택

41) 황재문은 이 일화들이 “혼인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인종이나 시대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남녀가 늘어났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정리했다. 황재문(2021), 167면.

미성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례들이 귀결되는 지점이다.

결혼하면 런익은 장사 지내고 열익할지니, 그 열익가 고정적(固定的) 불변성이 있나냐, 업나냐? 업다. 열익은 운화(雲花), 수포(水泡)와 가치 천변만화(千變萬化)한다. 부부간 열익하다 염증(厭症)이 싱기는 것이 실려(實例)이다. 상여(相如), 문군(文君)이 그 증거이며, 오늘날 리혼이 증거이다. 그뿐이라? 열익에 타기(他個)가 들어가 쫓드린다. 쫓지는 날은 무론 남녀하고 힐는 자는 인격 파상이다. 고정적(固定的) 항구성(恒久性)이 업는 것을 무슨 성공, 완성이라 디찬할가?⁴²⁾

인용문에서 작가는 천변만화하는 열애에는 “고정적 항구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부부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오늘날에는 이해타산까지 보태어져 인간으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시간, 공간, 젠더를 가로지르며 혼인제도 이후의 타락상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내는 이 같은 논법은 시대, 인종, 지역, 젠더를 위계적으로 분할하고 경계지었던 근대 지식인들의 사유 체계에 도전한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남성과 여성을 가로지르는 사람됨의 공통분모가 연애의 본질과 사례를 통해 상호접속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전낙청이 이 같은 렌즈로 비춰본 인간상은 어둡고 문제적이었다. 애인을 위해 남편을 죽이거나 배신한 고금의 여자들(장자 처, 조선 향촌 농가의 아낙, 미국 부동산업자의 아내), 유혹하고 배신했던 고대의 문장가(사마상여), 배우자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동서양 남자들(샌디에고의 할머니, 아버지의 친구 정기순)의 인간성은 “녀자의 심성 험악(險惡) 간사(奸邪)하지만, 남자의 심성은 비루음흉(비루음흉)하다.”⁴³⁾는 평가와 연동되던

42)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43) Ibid. 여기서 장자 처와 사마상여의 일화가 고대의 것이라면, 조선 향촌 농가의 아낙과 아버

서 작가의 어두운 현실관과 접속했다.

이 같은 논리는 식민지 조선의 세태와 연동되면서 “신진 인물들”의 “이상적 가정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 여섯 가지 부정한 사랑의 사례를 개진했던 「연애와 열애」의 말미에서 전낙청은 “소위 이상적(理想的) 가정설(家庭說)”(46면)을 본격적으로 논박했다. 여기서 작가는 “신진 인물들”과 “전덕 인물”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신진 인물들의 주장을 극렬하게 비판했는데, 그가 말한 “신진 인물들”이란 1920년대 유행했던 자유연애주의자들이었다.

한 마디 더 쓰고져 하는 것은 소위 ‘이상적(理想的) 가정설(家庭說)’이니, 우리나라가 망한 후 ‘가기구게고’을 아는 신진 인물들이 련리지상설에 취하여 유토피아이니 이상적 가정(理想的家庭)이니 극단으로 절규하며, 전덕 인물은 련이가 무엇인지 이상적 가정이 하물(何物)인지 몰고오 다만 인류를 번식 식히노라 육욕적 발동(肉慾的發動)으로 지목한다. 소위 이상적 가정은 명사썩이고, 실상 업는 허무딕량한 허위이다.⁴⁴⁾

여기서 사용되는 연애이상설과 이상적 가정, 유토피아 등의 용어는 1920년대 전반 조선의 연애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일본 『근대의 연애관』의 저자 구리야가와 하쿠손과 관련이 깊다. 잘 알려졌다시피 식민지 조선에 연애열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1920년대 초중반이다. 엘렌 케이를 계승한 이광수의 혼인 개혁론을 필두로 했던 이 연애열은 엘렌 케이의 입론에 낭만적 윤색을 가했던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달달한 언어에 크게 의존했다. “인간의 타는 듯한 정열과 감격과 동경과 욕망이 최고조

지 친구 정기순의 일화는 조선을 떠나기 전 작가가 직접 듣거나 본 근대전환기의 일화이고, 샌디에고의 할머니와 메리 이야기, 미국 부동산업자의 이야기는 집필 당대(현대)의 서구 일화에 해당한다. 다양한 일화들을 시대와 인종, 젠더와 무관하게 배치하고 병렬한 것은 에세이 「연애와 열애」의 특징적 일면이다.

44)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에 달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 연애에는 유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힘이 깃든다”⁴⁵⁾라는 하쿠손의 낭만주의적 연애론은, 양성(兩性)은 혼자로서는 불완전하므로 영육일치의 연애를 통해 인격완성을 지향한다는 영육일치의 연애관을 바탕으로, 파트너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결한 사랑과 결혼만을 인정하는 순수주의를 표방했다.⁴⁶⁾ 전낙청이 언급하는 연애이상설, 유토피아, 이상적 가정 등은 구리야가와와 영향을 받은 1920년대 청년들의 연애열에 말미암는 용어들이다.

“연애는 신성하다.”⁴⁷⁾ “연애는 인생 최고의 선(善)이요 미(美)이다.”⁴⁸⁾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구리야가와를 계승했던 1920년대 조선의 연애열은 구도덕의 벽에 부딪혔던 청년 남녀의 이혼동맹과 동반자살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연애와 열애」에서 전낙청이 잘못된 이상주의의 모델로 삼는 강명화, 장병천의 동반자살은 이런 풍조의 표본에 해당한다. 전낙청은 또한 연애를 통한 결혼을 연애성공자, 인격완성자라고 지칭하는 태도나,⁴⁹⁾ 사랑에 목숨을 바쳐 함께 죽음을 감행하는 정사자들을 “인격완성”, “용감한 대영웅”으로 칭송하는 관점⁵⁰⁾,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영육의 순정을 바치는 일을 지극한 행복으로 여기는 관점⁵¹⁾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러한 관점들 역시 구리야가와와 논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에 유행했던 연애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⁵²⁾

45) 구리야가와 하쿠손, 『근대 일본의 연애관』, 이승신 역, (서울:도서출판 문, 2010), 11면.

46) 식민지 조선 청년에 대한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Chiyoung Kim(2013), pp.113-140.

47) 김영보, 「失題錄」, 『조선문사의 연애관』, 설화서관, 1925, 57면.

48) 김광배, 「연애는 예술이다」, 『조선문사의 연애관』, 설화서관, 1925, 75면.

49) “모 남자(某男子)가 모 여자(某女子)와, 모 여자가 모 남자와 정인(情人) 시덕에서 런이하다가 중당 결혼하는 것을 런이성공자(戀愛成功者)라 인격완성자(人格完成者)라 디찬(大讚)하였다.”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50) “순정순교(殉情殉交)하는 남녀를 인격 완성이라 디담적(大膽的) 용감적 디영웅(大英雄이라)”, Ibid.

51) “남자로서 데이 여자와 접촉한 빅 업고 여자로서 데이 남자와 접촉한 빅 업스면, 무상한 행복이라 하였다.” Ibid.

주목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연애열에 대한 전낙청의 비판이 연애지상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이상적 가정”이라는 언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리상적 남자”, “리상적 여자”, “리상적 부부”, “리상적 남녀” 등 “이상”을 앞세운 일체의 욕망들에⁵²⁾ 격렬하게 맞서고자 했다. 심지어 「연애와 열애」의 말미는 “리상적 부부, 가정을 꿈꾸는 남녀, 물무량릉(物無兩能)이란 명사를 곱히 맞여라. (……) 듯거나 보지 못하였거든 단림할진더.”라는 명령으로 종결을 맺는다.

제도권 담론에서 이상(理想)이 인류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내는 진보의 출발점이라면, 전낙청이 쓰는 “리상(理想)”은 헛되고 부적절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 어휘였다. 그의 에세이에서 ‘이상’은 인간의 자연을 침해하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조작의 기원으로 다뤄졌다. ‘이상’이라는 언표 자체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신진 인물”에 대한 그의 비판이 제도권의 사유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 닿아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신진 인물”을 “가기구게고”를 아는 인물이라 칭한 데서 드러나듯, 그에게 조선 근대지식인들의 연애론은 조선을 삼켜 버린 일본의 그림자 위에 형성된 것이었으며, 부당한 권력과 위계 속에 형성된 허상일 뿐이었다. 탁미성에 의해 인간 사회의 모순을 설명하고 혼인제도의 ‘이상’을 부정하려 했던 그의 비판의식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경유한 근대 지(知)의 전횡에 맞서려는 의지와 닿아 있었음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조선 근대 지(知)에 대한 이 같은 작가의 부정 의식은 그가 거쳤던 구미의 경험과 전래의 학식, 과거의 기억을 가로지르며 시간, 인종, 지역, 성별 등의 구획과 분할에 저항하는 고유한 논리를 구성하는 글쓰기의 근

52) 작가는 이런 사례들을 케즈, 쉴스 등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학자의 이름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름을 빌어 설명하는 연애지상주의의 논리와 논지는 대체로 구리야가와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53) 전낙청이 “신진 인물”에 대한 비판의 초점으로 삼았던 “소위 리상적(理想的) 가정설(家庭說)”은 1920년대 연애를 회구하는 청년들의 욕망을 표상했던 “이상적 가정”, “스위트 홈(Sweet home)”의 관념과 직결된다.

간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전낙청 문학에서 ‘연애’는 다양한 이분법으로 인간을 구획하고 차별하는 분할과 경계를 해체하며 기성의 이념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매개였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사례들을 연계하고 접속하는 글쓰기를 통해 그는 일본을 경유한 ‘서구-근대’의 ‘이상’에 기초한 진보와 발전의 고정관념 속에 숨어 있는 결핍과 허위를 들추어내려 했다. 당대 조선의 주류 담론과 맞서며 연애의 본질과 관계의 구조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하는 가운데, 그의 논리는 당위로 관습화된 근대 이념에 내재하는 모순과 결여로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차별과 배제에 의해 구축된 선형적이고 고립된 유토피아를 부정하고 기성의 관계를 탈구축하는 이 같은 글쓰기는 시간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상상력의 전개로 진전된다.

5. 아나크로니즘과 민중성

제도권 사유에 저항했던 전낙청의 논의가 “순수”로 명명했던 긍정적인 사랑의 양상은 “과거 시대”에서 찾아졌다. “신진 인물들”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전낙청은 “전대 인물”의 시대인 “과거 시대”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다우며(純美)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연스러운(天然的)’ 연애로 일컬었다.

신진 인물들이 (중략) 전대 인물은 런이가 무엇인지 리상적 가량이 하물(何物)인지 물으고 다만 인루을 번식 식히노라 육욕적 발동(肉慾的發動)으로 지목한다. (중략) 과거 시대에 런이는 순미(純美)한 턴역적(天然的)이다. 비장적(秘藏的) 미가 주테 되고 표현적 미가 부속이다. 그런 고로 런이자을 원녀광부(怨女曠夫)라 지목하였다. 항상 퉁로(冷露)의 느낌이 있는 까닭이다. 현대 런이는 박잡(駁雜)한 화장적(化粧的)이다. 퉁노

의 늦김이 무슨 의미인지 아지 못할 듯하다. 그 박잡한 화장적 련이로 남의 순미한 자연적 련이를 육욕적(肉慾的)이라 하여 차(此) 소위(所謂) 실성(失性)한 자가 전성자(全性者)을 실성자라 함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⁵⁴⁾

인용문에서, 전대 인물들의 가족 권습을 비판하는 “신진 인물들”은 이광수를 비롯한 연애 주창자들을 가리킨다. ‘연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이루어지는 “번식”과 “육욕적 발동”으로 과거를 “지목”한다고 기술되고 있는 이 “신진 인물들”의 ‘견해’는 “조선사회(朝鮮社會)에 만반현상(萬般現象)이 차(此) 식(食)과 색(色)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선전(旋轉)”⁵⁵⁾한다고 했던 이광수 논설의 논법과 거의 흡사하다. 전낙청은 과거 조선의 가정을 “야만”으로 공격했던 이 같은 조선 지식인들의 담론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그가 말하는 “과거 시대”의 연애는 “박잡(駁雜)”하고 “화장적(化粧的)”인 “현대”의 연애와 반대로, “팅로(冷露)의 늦김이 있는” “비장적(秘藏的)”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차갑고 은근하며(冷露) 은폐되고 비밀스럽다고(秘藏的) 표현된 이 과거의 “순미한 자연적 련이”는 놀랍게도 혼인의 계약에만 묶이지 않는 제도 초월적인 성애와 연동되고 있었다. 「경제적 열애」에서 전낙청이 “순수하고 참된 열애”로 규정했던 것은 계약적인 혼인제도를 초월하고 제도의 제약을 뛰어넘는 성애의 표현이었다. “결혼과 열애는 (……)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며, “열애는 혼인 바깥에 있고, “열애는 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즐길 수 있”으며, “인물과 애정이 어떠한지를 표준으로 삼을 뿐”이라고 설명했던 “순수하고 참된 열애”(「경제적 열애」, 443면)⁵⁶⁾ 「연애와 열애」에서는 “과거 시대”의 “순미한 자연적 련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54)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55) 이광수, 「조혼의 악습」(『매일신보』, 1916.11.23.~11.26),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61, 501면.

56) 전낙청, 「경제적 열애」, 443면.

제도를 초월하는 분방한 사랑 속에서 ‘순수함과 아름다움(純美)’를 찾고 그 실천의 시공을 조선의 “과거”에서 찾는 경향성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전낙청의 창작에서 그 구체적 형상을 드러낸다.

고소설 형식을 띤 전낙청의 작품들이 매우 개방적인 사랑의 양상들을 포함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⁵⁷⁾ 연인이나 연모의 대상이 바뀌거나 혼외의 남녀관계가 윤리적 징계 없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은 전낙청의 고전적 창작인 『부도』, 『홍경래전』, 『홍중래전』에서 반복되는 공통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⁵⁸⁾ 이 작품들에서는 기방을 중심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어울리며, 많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능동성을 발휘한다. 영웅호걸들이 혼인한 여성들과 사랑을 약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진정(眞情)의 추구를 주제로 한 작품 『부도』에서는 “일부일처제를 부정하면서 정조 관념을 비판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한 명의 남성 주인공이 기혼녀를 포함한 일곱 명의 여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성진과 8선녀가 불화 없는 사랑의 관계를 구현했던 『구운몽』에서처럼, 「부도」의 주인공은 사소한 질투와 갈등의 요소들을 겪어가면서도 기생, 유부녀들과 무리 없는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청일전쟁의 풍파를 피하여 함께 은거하다 사라지는 독특한 생애를 보낸다.

이 같은 작품의 특이성은 작가가 애독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운몽」, 「서상기」, 「홍루몽」 등 고소설의 영향으로 해석되는데,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다수의 ‘유부녀’들과 사랑을 나눈다는 점은 기존 고소설과는 다른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⁶⁰⁾ 기혼녀의 혼외 사랑을 윤리적 판단 없

57)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8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11, 271-296면; 황재문(2021), 134-175면 참조.

58) 이는 「구제적 강도」, 「실모지묘」, 「삼각연애묘」와 같은 현대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작가 특유의 모티프라 할 수 있다. 전낙청 고전 창작에 나타난 연애의 형상에 대해서는 황재문(2021), 이지영(2020) 참조.

59) 이지영(2020), 황재문(2021) 참조.

60) 이지영(2020), 283면.

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소설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지점인 것이다.

『부도』를 연구한 논문에서 이지영은 작품의 주인공이 『구운몽』과 자신들의 예를 비교하여 “구운몽은 지은 글이오 우리의 일은 사실”이라 지칭하면서 “우리의 일을 (……) 너나 닳가 (……) 기록하게 되면 마음딴로 상상 분명이 기록할 수 있다”⁶¹⁾라고 말한 구절에 주목한 바 있다. 이 구절에서 작가가 고소설 가운데서도 사실적인 소설과 허구적인 소설을 구분해서 사유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⁶²⁾ 부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남길 것을 당부하며, 타인이 아니라 경험자 자신의 직접 쓰기를 강조했다라는 사실은 본고의 관점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작품의 실질적인 사실성과 허구성의 정도를 규명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언급은 적어도 작가가 인물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랑의 사실성을 특별히 강조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작가의 관점에서, 『부도』가 전개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는 적어도 『구운몽』을 넘어서는 사실성과 진실성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⁶³⁾ 인물이 유부녀와 기생을 포함한 일곱 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스토리를 다룬 장편 『부도』는 연애 에세이에서 피력했던 작가 전낙칭의 ‘순미하고 천연적인 과거 시대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실 『부도』 뿐만이 아니라 『홍경래전』, 『홍중래전』 등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그의 고소설 전체가 작가가 믿었던 순미하고 천연적인 연애의 실천들을 혼인제도와 무관한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려낸다.⁶⁴⁾ 제도와 무관하게 오로지 상대의 인격만을 고려하는 순수한 정념

61) 이지영(2020), 280면.

62) 이지영(2020), 280-283면.

63) 황재문(2021), 155면.

64) 황재문(2021) 참조.

이 실천되는 사회를 작가는 근대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 찾고 있으며, 작품 속 인물의 주장과 에세이를 통해 그와 같은 사랑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사랑의 문화를 이처럼 개방적인 관점에서 피력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과 현격히 배치된다. 이처럼 과격적인 사고가 거리낌 없는 자신감 속에서 대담하게 개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살았던 생이 제도권 교육과 거리가 먼 민중적 성격을 띠는 점과 긴밀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애와 열애」에서 작가는 청년 시절 장사를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전낙청은 한학과 전통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사대부로서의 삶보다는 민간의 생활전선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다. 앞에서 본 장자나 사마상여의 일화에서처럼, 그가 남긴 작품들은 작가가 동양 고전 일화에 매우 익숙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고전 일화의 인명이나 시대 등 여러 군데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개진하는 것은⁶⁵⁾ 그가 제도권 교육보다는 민간에서 학식을 쌓았으며 통설에 더 익숙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작자의 성격은 고향 정주의 산천과 풍속, 시정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알려진⁶⁶⁾ 장편 『부도』의 주인공인 ‘부도’의 성격에서도 유추된다. 부도는 어려서 한문을 익히고 13살에 초시에 합격하지만 가정 형편으로 상점의 사환이 되어야 했던, 문장력과 말솜씨가 뛰어난 인물이다. 상업에 종사했고 「소대성전」, 「구운몽」, 「서상기」 등 고소설에 익숙했던 부도의 캐릭터는 갑오년 전 여러 지역을 유랑하며 상업에 종사했고,

65) 황재문은 『구제적 강도』에서 작가가 쓰는 고전의 인물이나 사건 등에 명칭이나 사건 등이 사실과 어긋나는 사례들을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기억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작가의 견문이 정확한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소문과 추측을 포함하는 민간의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66) 『부도』는 전낙청의 미공개 작품으로, 인용은 이지영의 앞의 논문(2020)에 따랐다.

옛이야기에 해박하며 글쓰기를 즐겼던 작가 자신과⁶⁷⁾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기방 출입이 익숙하고 춤췄던 산대놀이(팔선녀 놀이)를 즐겼던 부도는 시정에서 세속과 융합하며 세간의 주목을 끄는 문화적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물론,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작가의 성격과 일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작가가 재현하는 과거의 문화가 사대부보다는 시정의 삶과 민중적 문화에 밀접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연애와 열애」의 한 일화에서 작가는 아버지의 죽마부우로서 보따리 장사로 팔도를 방랑했던 인물 정기순을 예로 들며, 그가 장한가, 팔선가, 적벽부, 춘향가 등 노래의 명인이자, 청루화방(기생집)과 주사(술집)에 익숙한 인물이었음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작가가 경험했던 문화의 민중성을 드러내는 자료가 된다.

이처럼 작가의 회고와 작품의 실체는 전낙청 문학의 사상적 기반이 이야기 문화를 즐기던 구한말 조선 사회의 민중적 지식과 경험이었음을 확인해 준다. 유교의 가르침과 규율 이전에 민중 사회의 경험과 이해가 지식과 사고의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은 전낙청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지배 질서가 아니라 세속의 경험과 현실이 지식과 신념의 기반이 될 때, 이 지식과 신념이 제도권의 상징질서에 의해 코드화된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가 신진 인물의 "이상적 가정"론에 맞서 변호했던 "전대" 연애의 실체는 결국 유교 윤리와 정조를 강조했던 사대부의 혼인관과 문화가 아니라, 이 같은 민중적 이해와 스토리 문화에 기반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펼쳤던 19세기 말 조선 민중 사회의 비혼(非婚) 혹은 혼외 사랑의 진정성을 그가 어느 정도 '실재'로서 인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결혼이 연애의 무덤이고 열애에는 고정적 항구성이 없다고 단언하며 신진 인물의 "이상적 가정"론을 공격했던 그의 논리가 "전대" 연애의 우월성

67) 전낙청, 「연애와 열애」, op. cit. 참조.

을 확신하고 있었음은 분명했다.

제도 지식에 배치되는 이 같은 주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시간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아나크로니즘적 혼란에 부딪힌다. 그가 기술하는 파격적인 연애 윤리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대 연애의 우월성에 대한 강변은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조적이다.⁶⁸⁾

그러나 그것이 민중적 삶의 산물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로지르며 변방의 삶을 전전했던 이주민의 탈경계적 사고와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제도 지식이 지배권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사랑과 결혼 문화와 풍속에 대한 진단과 학술적 논의도 양반 주류층의 사고와 기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시간성을 공유하면서도 민중 사회에서 이질적인 풍속과 경험들이 펼쳐졌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⁶⁹⁾

중요한 것은 전낙청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가 과거의 문화를 지속적인 운동과 성찰의 대상으로 재인식시키며 미완결의 상태로 현재와 접속케 하는 역동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그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는 사랑의 역사와 제도를 완성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 맥락들을 단일화하고 선형화하는 지배적 사고에 맞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험들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개방하는 것이다.

68) 여기서 말하는 아나크로니즘은 근대 이전에 연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논란과는 무관하다. '연애의 근대성에 주목하는 근대 문학의 학술적 논의가 문제 삼는 것은 '연애'라는 언술과 그것이 지칭하는 관념의 새로움이다. '연애는 근대에 발생한 언어이고 관념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연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근대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의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중세의 몽자류 문학이 '소설'로 일컬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글에서 근대 이전의 남녀의 이성애를 '사랑' 혹은 '연애'로 지칭하며 글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 의거한다.

69) 경계에 속하는 유이민자의 이 같은 타자적 시선은 국가 장치는 물론, 지배 담론과 주류 문화, 즉 우리 사회 현실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은경, 『밖으로부터의 고백』, 파란, 2017, 16면 참조.

이처럼 이질적이고 개방적인 시선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최하층의 주변인으로서 유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화된 근대를 거치지 않은 고유의 ‘고향 조선’과 ‘피지배층’의 삶에서 “순미하고 천연적인” “연애”를 찾으려 했던 시선 속에는, 언제나 주변인이요 열외자이며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던 작가가 지녔을 법한 울분과 서러움을 위로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권력관계에 대한 전복 의지가 엿보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경험하게 되는 ‘연애’의 문제에 주목하고 시대와 공간, 인종을 가로지르는 발생론적 사고 속에서 보편의 논리를 찾으려 했던 그의 노력 속에는, 평등하고 대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과 기성의 사유 속에 숨은 권력관계를 해체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과 아래로부터 형성된 경험과 시선은 근대적 가치가 은폐하고 있는 모순과 균열을 들추어내며 다른 사회 인식과 인간 이해의 가능성을 개방한다. 전낙청의 아나크로니즘적 사유가 논의의 맥락과 방식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사회주의계 안에서도 가장 급진적이었던 비주류 여성 지식인들의 사고와 유사한 전위성을 지닌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 흥미롭다. 연애와 열애를 구분하고 결혼제도를 부정하며 세속적 과거의 분방한 만남 속에서 사랑의 진정성을 주장했던 전낙청의 논리는, 당대 주류 지식인들이 공격했던 콜론타이즘의 급진적 주장과 마찬가지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성을 지닐 만큼 전위적이다.

그의 연애론은 아나크로니즘적 혼란과 소박한 로직으로 구성되지만, 이광수, 동인지 문학인, 사회주의 지식인들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던 기존의 한국 연애 담론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전통/근대, 동양/서양, 주변/중심, 야만/문명의 분할과 경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개방한다.

이 같은 시선은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허위를 짚어내는 타자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이민자적 위치의 산물이었다. 중심과 주변의 위치를 전복하고 다른 사고와 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는 전낙

청의 논의는 사이(in-between)의 존재로서 타자의 시선을 확보하는 유이민자의 사유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게 해 준다.

6. 나오며

전낙청이 구현하는 연애의 논리 속에 착종과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조선인들은 재래로 연애에 대한 논의를 꺼린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조선인들의 연애가 진실로 순수하고 참되다고 주장했으며, 현대 여성들이 물질에 혹하여 연애를 결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재산 없는 과거의 여성들이 재산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사례에는 지극히 온당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화랑과 기생 제도를 포함하여 인류의 역사를 연애 문화의 관점에서 서술한 부분에서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나 무리한 일반화가 드러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착종이나 논리의 모순은 제도 교육 외부에서 이루어진 성찰과 고민을 다루는 작업의 적지 않은 무게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연애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진단하려 했던 전낙청의 논의가 지배적 얇이 간과해 온 것들을 들추어냄으로써 관습화된 근대적 가치에 내재하는 결핍과 결여를 재인식시킨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사례들을 연계하고 접속하는 그의 글쓰기는 서구-근대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구축된 문명 발전과 진보의 역학에 저항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연애가 부모세대와 맞서야 할 연대의 전선이자 문명과 진보의 기획 위에 조선의 근대를 이입하는 다층적 경계와 분할의 지표였던 것과 달리, 전낙청에게 연애는 선형적인 계몽의 역학을 해체하고 관계의 일원성에 저항하며 서구적 근대의 당위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소재였다. 이 같은 사유의 역동성은 제도화된 지면에 한 번도 작품을 남긴 적이 없으며, 언제나 주변인이자 열외자요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유이민이 남긴 고독한 글쓰기가 왜 주목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준다.

구한말의 세속적인 민중의 삶 속에서 혼인제도의 제한을 뛰어넘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연애의 윤리를 발견하는 그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는 과거의 문화를 지속적인 운동과 성찰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게 하며 현재에 접속시키는 역동성을 지닌다. 구한말의 조선을 미완결의 시공으로 개방하는 그의 아나크로니즘적 사고는 다양한 사실과 맥락들을 일원화하고 단일화하는 근대의 지배적 사고에 맞서, 다른 역사 사회 인식과 인간 이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근대적 가치가 숨기고 있는 모순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이 같은 사유의 역동성은 문화적 긴장과 충돌의 세계 속에서 고립된 유토피아를 부정하고 기성의 관계를 탈구축하는 유이민자의 경험과 상상력이 지니는 의의를 확인하게 한다. 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역정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문학사적 성과를 낳았는지는 향후 그가 남긴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전낙청, 「경제적 열애」, 황재문 역, 『구제적 강도(현대어역본)』, 소명, 2020, 437-438면.
- 전낙청, 「경제적 열애」, 황재문 편, 『구제적 강도(주석본)』, 소명, 2020, 475-484면.
- 전낙청, 「인생관」, 황재문 역, 『구제적 강도(현대어역본)』, 소명, 2020, 456-484면.
- 전낙청, 「인생관」, 황재문 편, 『구제적 강도(주석본)』, 소명, 2020, 494-525면.
- 전낙청, 「연애와 열애」, (미출판. 미국 USC 소장:
https://digitallibrary.usc.edu/asset-management/2A3BF1Q048484?FR_=1&W=1865&H=956)

2. 단행본

-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1.
-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 2007.
- 정은경, 『밖으로부터의 고백』, 파란, 2017.
- 구리야가와 하루코, 『근대 일본의 연애관』, 이승신 역, 서울:도서출판 문, 2010.
-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 이현지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3. 논문

- 노지승, 「사랑, 돌봄, 사적 영역의 변혁 가능성과 한계」, 『한국근대문학연구』 23권 1호, 2022, 151-187면.
-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 2014, 299-330면.
- 우해천, 「연애의 계급성」, 『신여성』 제5권 9호, 1931.10, 26-29면. ; 안화산, 「계급적 성도덕 수립론」, 『삼천리』 제 5권 1호, 1933.1, 98-99면.
- 이광수, 「조혼의 악습」(『매일신보』, 1916.11.23.~11.26), 『이광수 전집1』, 삼중당, 1961, 499-503면.
-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흥경래란에 대한 기억」, 『한국학』 41권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5-304면.
- _____,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 해석』 26,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163-197면

- _____,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303-337면.
- _____,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8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11, 271-296면.
-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26권 2호, 2020. 191-219면.
- 정철성, 「赤戀 비판: 꼬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 『삼천리』 2호, 1929.9. 4-8면.
- 조규익, 「제 1세대 재미 한인작가의 소설(I) : 삼일운동 이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11집, 1998, 297-322면.
- _____, 「제 1세대 재미 한인작가의 소설(II): 삼일운동~해방직전」, 『송실어문』 15, 1999, 131-183면.
- 황재문, 「윽긴이의 말」, 전낙청, 『구제적 강도(주석본)』, 소명, 2020. 6-19면.
- _____, 「전낙청 문학에서의 ‘연애’의 의미」, 『한국학논집』 82, 2021.3. 143-175면.
- _____, 「『구제적 강도』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2018.12, 345-384면.
- _____, 「초기 재미 한인 문학과 변혁의 구상-전낙청의 〈홍경래전〉, 〈홍중래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43-79면.
- Chiyoung Kim, "The Conceptual History of 'Yonae'(love) in the Korean Colonial Period," *ACTA KOREANA*, Vol.16. No.1, Academia Koreana: Keimyung University, 2013, pp.113-140.

<Abstract>

The Boundary-transcending Imagination and Anachronistic Secular Perspectives of Nak chung Thun's Essay on Love

Kim, Chiyoung

Nak Chung Thun was a first-generation Korean American writer whose materials have been recently discovered. In his essays, ‘love’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authorial project to overcome the injustice of reality and reach the original core of life by illuminating the origin of human life. The discourse on love in colonial Chosôn was developed based on multi-layered divisions and boundaries that built systems on the plan of civilization and progress. In contrast, for Nak Chung Thun, ‘love’ was not an entry into modern civilization, but a material chosen to criticize the modern civilization he experienced. Through ‘love’, he sought to find universal truths that transce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Through colorful anecdotes that traverse time and space, he sought to find truths that deconstruct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based on boundaries and divisions. His theory of tacticity implied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ructure of humanity. The theory of tacticity dismantled the linear dynamics of enlightenment, deconstructed the unity of relationships, and caused cracks in the legitimacy of civilization. His view of love, which discovered the ethics of pure and free love that transcended the restrictions of the marriage system in the lives of the secular common people of the late Chosôn Dynasty, was

anachronistic. His anachronistic thinking re-recognized the culture of the past as an object of continuous movement and reflection and connected it to the present. His anachronistic thinking, which opened the past to an incomplete state, opposed the dominant thinking that linearly unified various facts and contexts. Thus, his anachronistic theory of love formed a dia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while exposing the contradictions and cracks hidden in modern values.

Key words: Nak Chung Thun, Freedom of Love, Romance, Immigration, America, Diaspora, The first Korean–American Generation, Late Chosôn Dynasty, The Colonial Period, Essay

투 고 일 : 2024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4년 9월 25일